

民族思想의 源流

— 神仙道の 根源的 糾明 —

安昶範著, 敎文社 刊

漢陽大學校 師範大學 敎授 都 珖 淳

한 민족의 사상은 그 민족의 아이덴티티이자, 파라다임이라고 생각할 때, 民族思想의 實相을 올바르게 규명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민족적 연구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한국의 原始思想을 사마니즘이라고만 단순히 일컬어 온 종래의 일반적인 학설과는 달리, 한국의 근원적 사상은 神仙道이며, 이 神仙道야말로 道·佛·儒 三敎의 根源思想이라고 하는 학설이 安昶範 교수(제주대)의 저서 「民族思想의 源流」(神仙道の 根源的 糾明)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탐구·이론화되었다. 이 저서는 1989년 敎文社에 의해서 출간된 이후로 많은 독자의 폭발적인 공감과 호응을 얻은 바 되어 근 1년만에 재판출판을 보게 되었다.

저자는 이 책의 초점을 한국사상의 근원이 神仙道에 있다는 사실과 그 神仙道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데 두고 있는데, 그는 이를 위하여 가장 타당한 연구방법과 풍부한 연구 자료를 총동원하였을 뿐 아니라, 예리한 자료분석과 용이주도한 논증과 명석한 논리전개, 참신한 해석, 명쾌한 문장표현으로 대처하고 있어 일견해서 이 저서가 사계의 보기 드문 力作임을 실감케 한다.

본 저서는 전 9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장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민족사상의 근원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시각에서 행해져야 할 필요성과 이에 적합한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고,

제 2장에서는 신선도의 근원이 거금 9천여년 전의 桓國시대에 있음과 그것은 이후 신라 시대에 까지 계승·발전되어 온 것임을 밝혔고,

제 3장에서는 신선도의 종교적 특성을 밝히되, 신선도와 道·佛·儒 三教 및 巫와의 관계를 종교적·역사적으로 규명하는 형식을 통해서 행하였고,

제 4장에서는 신선도의 사상적 형성은, 대자연의 운행원리인 天·地·人의 三才一體의 원리에서 연유하였음을 밝히는 동시에 신선도가 고대 한국 땅에서 발생하게 된 주요 요인이 한국의 독특한 지리적, 풍토적인 자연적 조건, 불사약으로 통하는 山藜의 산출, 민족성, 그리고 白頭山의 靈山으로서의 여러가지 조건 등에 있음을 밝혔고,

제5장에서는 신선도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밝혔는데, 그것은 宗教的으로는 三才一體의 원리에 연유한 道·佛·儒 三教一體의 玄妙之道이며, 정치적으로는 인권사상, 만민평등 사상, 共生共存사상 등을 포괄한 것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다른 한편 그것을 檀君의 建國秘史에 얽혀있는 사상성과 「天符經」 「三一神話」에 나타나 있는 사상성 등을 분석함에 의해서 그 사상적 본질을 조명했으며,

제 6장에서는 신선도의 戒律은 三倫·五戒·五倫 등임을 밝히는 동시에 그 사상적 특성·由來, 儒·佛 양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했고,

제 7장에서는 신선도의 종교적 의식에 대해서 역사적인 논증을 행하였고,

제 8장에서는 신선도였던 신라의 花郎道教團인 '花郎徒'의 연원·조직·사상·기풍 등과 三教·巫·두레 등과와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였고,

제 9장에서는 老·釋·孔의 道·佛·儒의 사상적 근원이 神仙道에 있음을 여러 문헌과 典籍을 근거로 하여 논증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학설을 풍부한 문헌자료와 관계 기성 학설을 가능한 한, 널리 섭렵·검토했을 뿐 아니라, 예리한 분석과 확고한 논증과 논리정연한 체계에 의해서 전개하였다.

종래의 한국이 원시종교로서 '巫'를 내세우는 일반론을 일축하고 고등적 종교인 신선도를 立論한 점은 매우 타당하고도 통쾌하다 하겠으며, 특히 신라의 花郎道를 신선도로, 花郎徒를 그 교단조직으로 보며, 「鸞郎碑序」의 '包含三教'를 花郎道가 三教의 사상원리를 근원적·자체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한 점 등은 그 정곡을 맞힌 타당한 견해라 하겠다. 그리고 또 三教의 근원이 신선도에 있다는 주장도 다음의 역사적 사정까지를 포함해서 고려할 때, 수긍이 가는 주장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즉, 東夷族이 고대중국(殷이전) 문화의 창조자였다는 사실, 東夷族 즉 알타이족의 원시신앙이 '巫'였으며 이 '巫'가 '仙'과는 표리일체적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샤만-方士), 道家사상은 곧 老莊사

상이거니와, 老子는 東夷人인 殷紂의 庶兄 微子啓의 所封國인 宋의 영토에 속하는 沛縣의 사람이었으며, 이 곳이 東夷族의 집결지였음을 감안할 때 老子는 東夷人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莊子는 蒙의 사람으로 宋의 왕족이었으니 그 또한 東夷人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儒敎의 시조 孔子나 그 원시조인 舜이 모두 東夷人이었다는 사실, 佛敎를 낳은 釋迦는 그의 두발이 捲毛였던 사실이나 그의 涅槃할 때 阿難이 葬法을 물음에 그가 轉輪聖王의 장법을 쓸 것을 명령한 사실 등으로 보아, 그는 구루族 즉 슈메루族(東夷族의 일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등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또 花郎道(風流道)의 사상성이 ‘接化群生’ ‘龍天歡悅 民物安寧 등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신선도야말로 汎神論的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서, 모든 종교사상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三神’을 天—·地—·人—이 三神하나님이라고 한 점, 「檀君古記」의 사료로서의 가치를 분석한 점, 화랑도의 체계적 연구, 신선도 발생의 풍토적 민족적 요인 분석, 신선도와 3교와의 사상적 상관성 등에서 두드러진 연구업적을 엿볼 수가 있다 하겠다.

이상의 관점에서, 본서는 한국학 관계 제 분야의 전문학자는 물론, 이 방면에 관심이 있는 독서인의 일독을 권하고 싶은 역작이라 하겠다.